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성경말씀: 출8:1-15

금요 기도회, 신명기, 성경의 이집트: 성도들을 삼키는 곳, 엮어매는 곳, 마귀의 세상, Egypt 611회, Egyptian 23회, Egyptians 98회, 총 700여 회, 대단히 중요한 곳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창15:14-16).

약 400년의 기간에 하나님은 민족을 형성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묶여 있다. 탈출해야 한다. 모세를 부르신다(출2:23-24).

우리의 구원 과정도 동일하다(영혼의 고통, 부르짖음, 구출자를 보냄). ★★★

파라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린다(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병,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이집트 사람들의 신들, 민33:4)

둘째 재앙, 어디에나 개구리가 있었다! 침실, 부엌, 거실, 빵 반죽 그릇,

집안의 오븐, 침실, 학교, 궁궐, 온 천지에 개구리가 있었다. 심지어 마술사들의 개구리까지(7절)

파라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렀다(출8:8).

모세는 기뻐했다. 드디어 파라오가 결심을 했다. 9절 말씀 설명

파라오의 대답, “내일 그리하라!”(10절) ★★★

아니 ‘내일’이라니. 개구리가 온 천지에 있는데, 백성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내일이라니!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듣고 언제라도 개구리들을 즉시 없애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은 결정은 오직 파라오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일!’이라고 말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Hugh Pyle의 원고 참조)

파라오는 죄인들의 모형이다.

무슨 이유일까? 파라오는 죄인이자 죄인들의 모형이다.

교만, 불순종, 육적인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벗어나 길 잃은 자의 표본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경고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 결과가 개구리였다. 개구리는 그의 죄 때문에 생겼다. ★★★

우리도 죄 때문에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 의심, 무거운 짐, 고통, 질병, 슬픔, 두려움, 혼란, 절망, 이혼, 부부 갈등 등의 비탄의 개구리들.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다. ★★★

슬픔과 어려움의 개구리들은 대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다! ★★★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개구리들을 제거하려 하신다. 말씀, 묵사

그런데 우리는 “내일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묶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파라오는 ‘내일’, 성령님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히3:7-8)

파라오는 ‘내일’을, 성령님은 ‘오늘!’ 우리는 어떤가? ★★★

우리는 대부분 ‘내일’ 사람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하는 말: “있다가 할 게요.”, “내일 할 게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 설명,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 압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배교자에게 권면, ‘돌아오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개구리하고 같이’

누가복음 9장의 세 종류의 ‘내일 사람’

(1) 57절,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를 위해 희생과 궁핍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집에서 안락한 ‘최상의 잠자리’에서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즐기는 것’을 선택한다.

(2) 59절, “내가 먼저”(59절).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문제는 바로

‘내가 먼저!’이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시옵소서.”는 사실 핑계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지내려 했다.

요점: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영안실과 묘비에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지내기 위해 자기의 옛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만 구원하며 그들만 사용한다. ★★★

(3) 61절,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나’가 그의 문제였다. 교회에 너무나 ‘그러나’ 사람이 많다.

‘믿고 싶다. 그러나 직장, 결혼, 사업, 공부 등등’

‘봉사하고 싶다. 그러나...’, ‘교회에 오고 싶다. 그러나...’, ‘신실하게 따르고 싶어요(침례). 그러나...’

이 사람도 ‘내가 먼저’를 주장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로 남아 있다.

예수님을 ‘주여’(Lord)라고 부르고는 “제가가 먼저...”(me first)라고 애원하고 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62절)

하룻밤이 영원이 된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방종함을 허락하소서. 하룻밤만 더 극장에서, 술집에서, TV보면서, 놀음판에서, 댄스하면서, 보내게 해 주소서.”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라고 말하지만 그 ‘하룻밤’은 끔찍하고 끝없는 밤으로 연장된다. ★★★

창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남, 라반을 만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함, 그들이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함, 그가 귀중한 선물을 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종이 당장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함(54절). 적어도 10일은 같이 있어야 한다(55절), 리브가에게 물어 봄(57-58).

그러자 리브가는 당장에 가겠다고 함. ‘가겠습니다!’(58절, I will go).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다.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가 아니다. 오늘이다.

오늘 결정해야 하는 이유

(1) 개구리는 내일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다.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들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적당한 때가 오면 부르리라(25절)

그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한 뒤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2) 개구리 대신 더 나쁜 것이 올 수도 있다!

파라오의 경우가 그랬다. 개구리 다음에 이, 파리, 메뚜기, 종기, 어둠, 그리고 장자의 죽음. 지금의 개구리보다 더 나쁜 것이 올 수 있다.

(3)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잠27:1), 약4:13-14, 우리 생명은 수증기다. ★★★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북한군이 평사포, 대구정포 등으로 170여발을 포격했고 우리군도 자주포로 80을 포격했다.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 사망, 다수 부상, 연평도 대부분의 주민이 섬을 비우고 피란하듯이 도망 나왔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65년 동안 이북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마귀 세습, 3월 26일의 천안함 피격 40명 사망, 6명 실종

중북 좌파들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부인이 극도로 올라와 있다. 대학생의 다수가 정부를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간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포를 쏘서 인명 피해를 낳았다.

그 날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임한다. ★★★

우리 성도들의 소망: 휴거, 고전15:51-53

이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오신다. ★★★

사람의 죽음은 언제라도 오게 되어 있다. ★★★

‘내일’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